전주시민축구단, 프로리그 진입 조직개편

내년 K3리그 참여 법인화 착수
2030년 50% 이상 전주지역
유소년 클럽출신 구성 목표

전주시민축구단이 2020년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K3리그 참여를 위해 법인화 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전주시민축구단.

전주시민축구단이 프로리그 진입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19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2020년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K3리그 참여를 위해 법인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K3와 K4는 세미프로다. 이에 디비전시스템을 구축해 1부~4부까지 승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K3와 K4 클럽라이센스 규정을 보면 구단 법인화와 선수단은 2023년까지 20명이상으로 연봉계약, 유소년 팀 육성, 사무국 구성 등이 있다.

특히 전주는 축구 유망주를 발굴해 지역의 스타로 만들고, 창단 20년인 오는 2026년에는 성인 팀 선수 30%, 2030년에는 50% 이상을 지역 유소년 클럽 출신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2019 FIFA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20세 이하(U-20) 축구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남자부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면서 U-20 월드컵 준우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도내 출신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 축구도시 답지 않는 면모를 보여줬다.

이에 전주는 유소년 클럽시스템 구축에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는 지난 2015년 유소년 클럽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초등부인 'U-12' 팀과, 중등부인 'U-15'팀을, 그리고 올해에는 고등부인 'U-18' 팀을 조직해 주말리그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전주는 이어 오는 7월부터 기존의 팀을 유지하면서 유치원 6~7세 보급반과 초등 1~2학년인 U-8(보급반), 3~4학년 U-10(보급반), 초등 5~6학년 U-12(보급반) 팀을 만들어 각종 대회에 출전해 경험을 쌓을 전망이다.

창단부터 '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는 전주는 유명 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 보다는 유소년 출신 선수들을 육성해 전주에 맞는 팀을 만들 계획이다.

전주는 앞으로 '축구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갖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팀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우리 구단은 다른 구단에 비해 예산이 적다"며,"성장 가능성이 많은 어린 선수들을 직접 육성해서 성인 팀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구단은 앞으로 프로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육성철학과 색깔로 유소년 팀과 성인 팀을 아루르는 클럽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아이들의 무료 스포츠교육 지원

무주 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 - 설천초 협약 체결

사단법인 무주 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회장 이상욱, 이하 본 클럽 이라함)과 설천초등학교(교장 백희철)는 설천초등학교 재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8일 11시 설천초등학교 반디 홀에서 태권도, 요가, 헬스 등 재학생에 대하여 무료 스포츠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클럽의 전문 체육지도자가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재학생들이 쉽게 요가, 헬스, 태권도 종목을 접목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비만 퇴치와 성장에 도움을 주어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증진 사업이다.

클럽은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 내에 수련장과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태권도, 요가, 헬스 3종목을 기본 수련프로그램으로 해 종목별로 국가 및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지도자(매니저)가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태권도원의 우수한 수련 시설을 활용하여 무주군내 설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과 성장, 건강 증진, 생활에 활력소를 부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럽은 무주 지역의 각종 생활체육 단체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신나는 주말 학교 등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스포츠교육을 지원함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고 신명나는 지역 사회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상욱 클럽 회장(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무주군민들에게 태권도원의 좋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누구나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하여 태권도원의 시설을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중스포츠교류, 내달 전북서

양국 중학생 대상 25일부터 31일까지

오는 7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12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전이 7월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전 대상은 양국의 중학생이며,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총 160명(한국 80명·중국 80명)이 일주일간 도내에 머물며 합동훈련과 연습경기, 공식경기 등을 치르게 된다.

또 경기가 없는 날에는 도내 곳곳을 돌며 문화탐방 시간을 갖게 된다.

배드민턴 종목은 전주 생명과학고 체육관에서 열리고 농구 종목은 전주고 체육관과 전주기전중 체육관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탁구는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교류전에 출전하는 우리측 선수들은 전북도 선수 중심으로 구성됐고, 중국측 선수들은 쓰촨성 지역 선수들이다.

이들은 선의의 경쟁 속 국경을 넘는 우정을 다지게 된다.

전북도와 도 체육회는 이번 교류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북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한·중스포츠교류는 총 2차례(초청·파견) 진행되며, 오는 11월에는 한국 선수단이 중국으로 파견 돼 우호 관계를 강화한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참가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경제적·지리적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한 '2019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희망나눔 캠프)'를 총 3차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 희망나눔 캠프 참가자들은 태권도 기본자세와 격파 등의 태권도 수련·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태권도원 상설공연 및 국립태권도 박물관 관람, 명랑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행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캠프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19일부터 태권도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태권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시설·기관 등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 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